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10일 월요일 음 6월 21일 (13물)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도는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을 받아 호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27℃. 낮 최고 기온은 29-32℃의 분포를 보이겠다. 많은 비로 인해 하천 부근과 해안가 지역에는 침수피해가 예상돼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and other weather indicator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two days.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Rows show UV index, typhoon risk, and other safety-related weather info.

월드뉴스

정권퇴진 시위 유혈사태... 170여명 사상

레바논 총리 조기 총선 제안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8일(현지 시간) 폭발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70여명이 다쳤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하산 디야브 레바논 총리는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레바논 적십자는 시위대 및 경찰 172명이 충돌 과정에서 다쳤고 5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레바논 시위대 수천 명은 이날 베이루트 도심 순교자광장 등에 모여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고 레바논 매체 '데일리스타'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폭발 참사를 둘러싼 정부의 무능과 정치인들의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거칠게 표출된 것이다. 앞서 이들 전인 6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베이루트를 방문했을 때도 수백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날을 '복수의 토요일'로 정하고 폭발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정부 시위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진 가운데 디야브 총리는 이날 TV 연설에서 "월요일(10일)에 의회 선거를 조기에 치르자고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고 일부는 의회 건물로 접근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가스 및 고무탄을 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fax, and website details.

백록담



현영중 부국장 겸 서귀포지사장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가 대폭락했다. 주식시장발(發) 경제불황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인접·교역 국가와 연쇄적으로 맞물리며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비화됐다.

'제주형 뉴딜'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책'을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루스벨트는 임기 시작과 함께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는다. 그 유명한 뉴딜정책의 시작이었다.

나19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국가발전 전략이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뉴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비하는 '그린 뉴딜', 경제사회의 구조의 대전환과 노동시장의 재편을 통해 양극화 심화요인을 제거하는 '안전망 강화'로 대표된다.

종합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다. 뉴딜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뉴딜정책에 힘입어 대공황을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련의 정책들에 힘입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던 미국 경제도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었다. 1937년 GNP·산업생산·지출·통화량 등 지표 기준으로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실업률도 제법 낮출 수 있었다.

제주자치도와 양 행정시의 행보도 숨가쁘다. 제주자치도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선보인다. 이 중 일부는 지난 5일 제주자치도의회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윤곽이 드러났다.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놓고 말들이 많다. 제주자치도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도 '제주형 뉴딜'이 기존 정책의 재탕·짜깁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93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는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

정부가 지난달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빛어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코

열린마당

휴가철 물놀이 안전의식 준수하자



강성한 제주시 안전총괄과

긴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이번 여름은 특히 열대야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 한다. 최근 제주에 몇 십년 만에 열대야 온도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한다.

위에 소리쳐 알리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이때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넷째, 인지능력 및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 및 어린이들은 사전 안전교육 및 주의를 반드시 시키고 보호자가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하는 곳이 좋다.

폭염, 안전한 농작업으로 대처하자



한윤아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일일 최고기온이 33℃ 이상 2일간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35℃이상이 2일간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휴식을 가져야 하며 시원한 물을 평소보다 자주 마시고 하우스 또는 축사에서 일을 할 때, 지나친 냉방장비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 아이스팩 등을 지니고 할 경우 오히려 더위로 인해 몸에 무리가 오는 점을 인지 못해 더 위험할 수가 있다.

물놀이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첫째,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후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대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둘째, 계곡이나 바다의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므로 조심해야 하며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셋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안전요원 등 주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개인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반드시 동참해 가족과 행복한 야외 활동이 돼야 한다. 오랜만의 나들이로 즉흥적 행동과 야간 음주행위 등을 자제하고 기상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더운 여름철 농작업을 할 때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온열질환의 40% 이상이 이 시간에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농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모자를 착용하고 그늘막 등을 설치해 작업 도중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혼자 작업하는 것 보다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작업 시 반드시 시간당 10~15분의

Advertisement for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All varieties of citrus seedlings for sale) with contact info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그랜드보청기' (Grand Hearing Aid) with promotional offers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Jeju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y Hanra)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티엔정보기술(주)' (Tien Information Technology) showing services like VOICE & 영상장비, NETWORK 설비, and ONE-STOP SYSTEM.